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이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1월 29일 자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이 '죽 썬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 줌의 권력과 맞바뀌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2월 5일 임 교수가 그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교수 고발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사과하라'고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지도부는 침묵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내정자이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검손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에 "한입이 검손해야 한

다"고 한 말에 대해 "사과는 없고 텅 빈 수사만 있다. 아주 우아하게 손을 씻고 있는 위선"이라고 했다.

언론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론에 떠밀려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고발인인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임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위에 신고하고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등 신상 털기를 했다. 이에 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해찬 대표가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임 교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3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만(傲慢)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거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한

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썼다. 임 교수 칼럼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를 비판하는 취지이다. 대구 북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재선)도 이날 페이스북 북에서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민주당 이야기"라며 "민심은 하늘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민주당에게 온전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 더구나 스스로 검찰을 하늘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과국이 시작된다. 진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의 정국(正局)을 찌르는 참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청와대가 아직은 살아 있다.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 2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집값, 임미리 교수 논란에 대하여 국민들에

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누구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오만에 질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무적(無敵)의 위대한 로마제국도 지배계급 귀족들의 방탕과 오만으로 패망했다. 모든 집승의 왕, 백수(百獸)의 왕이라는 사자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적, 조그마한 병균에 의해서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잘 나가면 자칫 오만해지기 쉽다. 남을 가볍게 보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남의 존재를 무시한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한다. 남의 도움을 모르거나 과소평가한다. 칭찬 받기만을 바라고 귀에 거슬리는 비판은 배척한다. 자기가 최고라는 자기 취에 빠진다. 자기 보다 못한 사람에게서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남패를 볼 때 까지 자기 도취의 오만함과 잘못을 모른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린다. 인생 무상(無常)과 권력 무상을 모른다. 그래서 공자(孔子)는 2천5백년 전에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慎其獨一日三省)'는 불멸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社 說

민주당 경선, 잡음 없어야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끄는 것은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민주당 지지세의 우위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지역으로 광주 동남을, 광주 북구갑, 광주 북구를, 해남·완도·진도 등 4곳을 발표하는데 이어 2차로 목포, 여수, 나주·화순 등 3곳을 추가했다. 1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의 대진표가 나왔다.

1차 발표에서 눈길을 끈 지역은 전략공천실이 나왔던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이다. 선거캠프 간부의 폭언 논란으로 후보 사퇴 공방이 벌어진 광주 동남을은 '이병훈-김해경' 경선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 전략공천실이 끊이지 않던 북구갑도 '정준호-조오섭' 구도로 확정됐다.

전남지역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윤광국-윤재갑 후보가, 목포는 김원이-유기종 후보가 맞붙는다. 관심을 끄는 나주·화순은 김병원-손금주-신

정훈 세 후보가, 여수에는 김희재-정기명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르는데 특히 나주가 호각지세여서 경선부터 불꽃 튀는 혈투가 예상된다.

1차로 발표된 지역에서는 오는 24일 경선이 시작돼 사흘간 치른다. 바야흐로 후보간 사활을 건 공천 전쟁의 본막이 오른 셈이다. 경선은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투표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한다. 광주·전남은 한 선거구 당 권리당원의 수가 적게는 5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광주·전남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경선에 잡음이 생기면 유권자들은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 스스로 감시자가 되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법정기간이 운영되고,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대형 산불 특별대응 기간이다. 기억하기 싫은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난 산불은 산림 2800여 ha를 집어 삼켰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세계는 지금 대형 산불의 수난시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

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봄철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한다.

산림법에는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시 처벌규정이 있고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서 논밭두렁 소각 시 소방관서에 신고의무를 두게 하는 등 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로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적, 제

도적, 기술적 노력도 국민들의 의식 개선 없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 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등 폐기물 소각, 임산자실화, 담뱃불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조심 사 생활화 되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남들도 하는데"가 아니

라 "나만이라도", 산림 내에서는 화기물 소지 안하기, 산림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 안하기 등 나부터 나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질 때 산불예방의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호주의 작은 불씨가 코알라의 멸종까지 운운하는 대재앙의 대형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작년과 같은 동해안 대형 산불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하고 감시자가 되어 산불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시점이다.

한선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